

6) 무대음악(舞臺音樂)

(1) 산 조

산조는 전통음악 중에서 기악독주곡 형식의 음악이다. 주로 전라도 소리의 시나위와 판소리의 가락을 장단이라는 틀에 넣어 연주하는 즉흥성을 띤 음악이다. 장단은 대개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로 이루어진다. 가야금산조는 자진모리 뒤에 휘모리와 단모리(세산조시)가 첨가되고, 거문고산조에는 중모리와 중중모리 또는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사이에 엇모리가 들어간다. 산조의 장단 배열은 항상 느린 진양조부터 시작하여 중간 속도의 중모리를 거쳐 빠른 속도의 자진모리나 단모리로 끝나게 되어 있다. 산조는 전남 영암 출신의 김창조가 처음으로 가야금에 그 틀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와 충청도, 경기도 남부의 민속악인들이 여러 악기들을 이용하여 산조를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산조의 조는 판소리에서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조(羽調)·평조(平調)·계면조(界面調)·경드름(京調)·강산제(江山制)·설령제(덜령제)가 있다. 가야금산조에는 이것들이 모두 쓰여 곡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으며, 거문고 등 다른 악기에서는 우조·평조·계면조 등만이 주로 쓰여 비교적 단순한 맛을 준다. 조 중에는 선법(旋法)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선율형(旋律形)이나 음악어법을 뜻하고 있다.

산조에는 여러 유파가 있어 제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유파는 바다 또는 제(制)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생긴 이유는 주로 사사계보(師事系譜)와 지역적 특성 등에 기인한다. 이 유파가 가장 많이 생겨난 것은 가야금산조이며 그 다음은 거문고산조이고 그밖의 악기들은 단순하다. 유파 중에서 그 유래는 당연히 김창조로부터 시작되지만, 여러 유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야금산조 외에 대금산조나 아쟁산조 등이 전남 출신인 박종기와 한일섭 등에 의해서 처음으로 짜이고, 충청도 출신 백낙준의 거문고산조는 전남 담양 창평 출신의 박석기(1899~1952)를 거쳐 광주 출신인 한갑득에게 전해져 오늘날 수많은 제자들을 두었다. 따라서 전남지역이 바로 산조의 고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전남제 가야금산조에는 김창조류·한숙구류·최옥삼류·안기옥류·김병호류·강태홍류 등이 있다. 김창조류는 오늘날 김죽파류로, 안기옥류는 김윤덕류로 각각 전해지고 있다. 백낙준에 의해 시작된 거문고산조는 그의 문하에서 김종기, 신쾌동, 박석기 3명이 사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신쾌동류와 박석기류만이 전하고 있다. 박석기류는 오늘날 한갑득류로 이어져오고 있다. 신쾌동류는 스승과 같이 엇모리가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사이에 있으나, 한갑득류 엇모리는 중모리와 중중모리 사이에 나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산조는 반드시 장구반주가 따르는데, 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수는 가끔씩 추임새를 넣어가며 연주자의 흥을 돋우며 그의 능력에 따라 연주의 효과가 배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진양조와 중모리 같은 느린 부분에서는 농현(弄絃)에서 비롯되는 미분음(微分音)의 효과가 들을 만하고, 자진모리같이 빠른 부분에서는 빠른 가락을 연주하는 기교가 불 만하다. 산조의 멋은 전체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긴장과 이완의 대비에 있다.

산조의 전남 출신 명인들은 가야금산조에 김창조·한숙구·한성기·최옥삼·김죽파·함동정월·김병호·강태홍·원옥화·한수동·정남옥·서공철, 거문고산조에 박석기·한갑득, 대금산조에 박종기와 한주환, 아쟁산조에 한일섭·장월중선·정철호·박종선 등이 있다.

한편 오태석이 가야금병창을 개척하여 일제시대 때 대명창으로 군림하였다. 순천 출신 국악

인들의 구술에 따르면 일제시대 때 순천권변의 가야금선생으로 있었던 화순 출신의 박춘섭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현재 순천 출신으로서 산조 연주로 잘 알려진 명인은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성애순 교수이다. 성애순 교수는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가야금을 전공하였고,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를 이어받았다. 이외에도 순천 출신의 전문학사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순천시민회관 뒤편에 있는 남도국악원에서 가야금을 지도하고 있는 서정화 등이 전문학사 출신으로 이제는 후배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2) 판소리

판소리는 조선 중기 이후에 시간예술 형태로 정착된 우리나라 고유의 독창적인 극(劇)음악이다. 노래하는 한 사람(唱者)이 북을 치는 한 사람(鼓手)의 장단에 맞추어 극적인 또는 서사적인 내용으로 된 긴 사설을 소리(노래), 아니리(말), 발림(몸짓)으로 엮어가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춘향가·적벽가·심청가·홍보가·수궁가 등 다섯 바탕이 전해오며, 이외에 가루지기타령·장끼타령·강릉매화타령·가짜신선타령·배비장타령·옹고집타령·왈짜타령(무숙이타령)·숙영낭자전 등이 판으로 짜여 불리는데 오늘날에는 불리지 않는다.

판소리가 판으로 짜여진 것은 1674~1720년 무렵일 것으로 추정되고, 1725~1800년 때는 우춘대·하한담·최선달과 같은 명창이 판소리 열두 바탕을 불렀다. 그뒤 권삼득·송홍록·모홍갑·고수관·염계달 등이 판소리의 기틀을 확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것은, 이 시기까지는 전남 출신의 명창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판소리는 산조와 달리 전남을 중심으로 발생된 음악 장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뒤 박유전·정창업·이날치·김세종·박만순·박기홍 등의 시대로 이어지는데, 이 시기는 판소리가 가장 융성했던 전성기였다. 바로 이 시기의 명창들이 전남지역 출신이거나, 전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명창들이 대부분이다.

1910년 이후로는 사회적 변동으로 판소리가 쇠퇴하면서 창극으로 분화되고 산조 등으로 기약화되는데 이 시대에 활약한 명창은 김창환·송만갑·이동백·정정렬·김창룡 등이다. 이 시기의 명창들도 전남 출신들이 주종을 이룬다. 후에 연구가들이 8명창 시대, 5명창 시대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8명창과 5명창을 꼽는 기준은 일정하지 않다.

20세기 초의 5명창 뒤에는 장판개·김정문·공창식·임방울·이화중선·박녹주 등이 활약했고, 1960년대 후에는 김여란·정광수·박동진·박초월·김소희·박봉술·한승호·정권진 등의 명창과 고수에는 김명환이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전문예능인들은 그들의 음악적 성향으로 동편제·서편제·중고제 등으로 나뉜다. 이 음악적 성향은 지역적인 전수방법의 차이에서 구별됐는데, 오늘날은 전수계보가 서로 섞여서 동편제와 서편제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순천지역의 판소리는 대부분 동편제 판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시대에 순천에는 오바독에 의하여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었으며, 후에 구례 출신의 박봉술과 박봉채·박봉래 형제들이 순천 판소리의 맥을 이었다. 현재는 박정례·선농월·염금향 등이 박봉술에 이어 판소리의 맥을 전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무안지역에서 이주해온 주순자 등이 순천국악원과 판소리보존회, 남도국악원 등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전통음악에 관한 역사적 가치를 확인할 만한 문헌이나 기타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순천지역의 음악사는 상상과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구술에 따른 내용마저도 확인할

수 없는 일제시대 이전의 이야기들은 생각할 수도, 글로 옮길 수도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일제시대 때 전통음악의 명맥을 유지하였던 권번이라는 단체가 순천에 있었고, 또한 권번에서 활동하였던 노선생(박정례)이 조사에 응해주었기 때문에 간단하나마 50여 년 전의 음악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먼저 조사에 응한 박정례 명창은 구례에서, 명창 송만갑의 수제자인 박봉래의 무남독녀로 태어났고 예명은 향산(香山)이다. 부친인 박봉래는 박정례가 9세 때 작고하였다. 13세 때부터 작은아버지인 박봉채에게 심청가와 토막소리를 배웠고, 서공철로부터 병창·산조·풍류 등을 배웠으며, 성금련과는 어려서부터 친구 사이로 지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권번에서 여러 가지 예능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23세 때부터 주거지를 순천으로 옮겼다. 박봉채는 한의로서 소리행세는 하지 않았으나 소리를 잘 알아서 제자를 가르쳤다. 박봉술과 강도근도 박봉채에게 판소리를 공부했다. 동편제의 거장인 박봉술은 작은아버지로 나이는 2살 차이지만, 젊어서는 박봉술에게 소리를 많이 배웠다고 한다.

한편 박봉술은 순천에 거주하면서도 화엄사나 천황사, 쌍계사의 불일폭포 등지에서 백일공부를 많이 하여 성음을 닦았으며, 순천에서만도 박정례·선농월·박미홍 등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또한 박봉술은 권번이 사라질 당시에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순흥창극단을 조직하여 창극활동을 하였는데, 활동인원은 20여 명으로 주광덕·공기남·배금찬·박정례·선농월·박향·성창열(연극)·성옥란 등이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박정례 명창과 함께 활동했던 명창인 선농월 명창은 순천에서 태어났다. 박봉술에게서 춘향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를 배웠다. 선농월의 소리는 창도 좋고 불입새도 좋으나 성음이 통속조에 가깝다고 한다. 순흥창극단에서 활동하였으며, 몇 년 전까지는 순천국악원에서 판소리 사범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몸이 불편하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 같이 활동하였던 명창으로는 전옥순과 박미홍 등이 있다.

순천의 권번은 일제시대에 하동권번·광주권번·조선권번 등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었고 소리에는 오바독, 기악에는 박춘섭이 있었다고 한다. 권번에 속했던 인원은 40~50명이었고, 1938년에 해체되었다. 순천권번이 있었던 곳은 현재 옥천동의 평화의원이 있는 자리라고 한다.

해방 이후 박봉술 등 여러 명이 함께 하였던 순흥창극단이 다시 정착하면서 현재의 순천시 국악협회와 순천국악원의 뿌리가 되었다. 현재 순천시국악협회가 운영하는 순천국악원에서 박정례 명창이 사범으로 있고, 판소리보존회에서 운영하는 강습소에서는 염금향 명창이 사범으로 있다. 남도국악원에서는 판소리 사범으로 주순자 명창이, 가야금 사범으로 서정화가 후진 양성을 하고 있다.

